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결과보도 (2016. 9. 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9월 6일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됨.
-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 TF 위원 신동근 의원, TF 위원 조승래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가 참석함.
-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해결하고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함.
- ▲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대책 TF가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해서 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며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9월 6일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 TF 위원 신동근 의원, TF 위원 조승래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송

인수, 윤지희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해결하

고 사교육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디어 입시와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법률로 금지하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여 사교육 고통이 심각해왔다고 외쳐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통계청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사교육 지출의 핵심 이유를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점을 알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변변한 법률이 없었는데, 드디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대책 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가 나서서 이런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 사교육비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고 활동해온 결과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5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국회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사교육 대책 TF(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가 우리 운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관련 법률 제정을 약속하였고, 약속한 바에 따라 이번에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서는 물론이요 면접 단계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출신학교 및 학력란을 삭제하는 것과 채용 과정은 물론이요 상급학교 입시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출신학교란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 및 그런 의구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입시와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률 제정 운동과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 외에 새누리당 및 다른 당 유력 의원들도 유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온 국민의 숙원 과제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사교육 경감에 절박한 민생 현안인 만큼 20대 국회를 ‘민생을 위한 협치’로 다짐한 여야 정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 처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이요 앞으로 전국 거리 서명과 전국 시민공청회를 전개하며,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법률이 반드시 20대 국회를 통과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 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고용의 전 영역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이것에 대한 시정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2.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영역에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차별 행위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안 제3조)

3.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정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합니다. (안 제5조~제8조)
4. 모집과 채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모집과 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응시 서류와 면접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임금, 복리후생, 배치, 전보, 승진, 국가자격 부여 등 고용 전 영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12조)
5. 교육 영역에서는 입학전형자료와 전형 절차에서 출신학교와 응시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 제 13조)
6.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7. 사업주나 교육기관의 장은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 제21조~제24조)

※ 공동 발의 의원 명단: 오영훈(대표 발의 의원), 강창일, 고용진, 김병욱, 김해영, 노웅래, 도종환, 소병훈, 신동근, 안민석, 여기구, 이상호, 위성곤, 유은혜, 이원욱, 전재수, 조승래, 표창원 의원 이상 18명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 발의 경과: 올해 4월 26일 출범식을 거쳐 4개월 만에 발의 결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 9. 24.~10. 15.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토론회 및 연속 보도
- 2016. 4.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개최
- 2016. 5.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거리서명 시작
- 2016. 6. 3.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관련 규탄보도

- 2016. 6. 7.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실태’ 규탄 기자회견
- 2016. 6. 8.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내 ‘사교육비 절감 TF’ 구성에 대한 환영 성명서
- 2016. 6. 10.~6. 17.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학벌사회』 저자, 전(前) 학벌없는 사회 이사장 역임)의 2회 특별 공개 강연 개최
- 2016. 7. 6.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국회 특별강연 및 좌담회 개최
- 2016. 7. 12. 나향욱 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발언 비판 성명서
- 2016. 7. 14. 나향욱 사건-신분제 공고화 중단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회 앞 1인 시위 선포
- 2016. 7.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의 공동 주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 2016. 7. 18 ~ 8. 2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수시 수정 및 검토
- 2016. 9.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등 18인 발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대책 TF가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해서 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며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 9.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중(070-7602-2768/내선번호 510)

- 첨부자료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②: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③: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문)